국 무 조 정 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12:00 이후 사용 배포 2026. 11. 13.(금)

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- 한성숙 국무총리,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

- (안건1) 정부24 “온동네 돌봄” 통합 창구로 초등돌봄 서비스 일원화
- (안건2) 미사용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, 내년 5월 카드포인트부터 추진
- (안건3) 국민이 직접 제안한 규제합리화 우수 제안 11건 최종 선정
- (안건4)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비, 준비상황 최종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

【관련 국정과제】(안건1) 101.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
(안건4) 72.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

□ **한성숙 국무총리**는 11월 13일(금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**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**를 주재했다.

* ❶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방안(교육부) ❷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계획(국조실), ❸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결과(국조실) ❹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(국토부)

□ 한 총리는 “올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**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**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”며, “앞으로도 **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**를 만들어 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○ 특히, “다가오는 **겨울방학을 앞두고**, **학부모**님들이 **돌봄서비스**를 이용하면서 겪고 계시는 **불편부터 덜어드리고자** 한다”며 회의를 시작했다.

□ 먼저, 첫 번째 안건으로 「**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방안**」을 논의했다.

○ 그동안 **여러 부처와 기관**에서 다양한 **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**해 왔으나, 학부모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.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「**온동네 돌봄**」 브랜드로 통합하여 **접근성을 높일 계획**이다.

○ 특히, **정부24** 내에 **「온동네 돌봄」 통합 창구**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**검색**부터 **신청**은 물론, **결과 확인**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○ 우선, 오는 **12월 1일부터 정부24의 「온동네 돌봄」 통합 창구**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, **3개월의 시범운영** 기간 동안 시스템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**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 보완해나갈 방침**이다. 또한, 신청에 필요한 각종 **구비서류를 간소화**하고, **AI 국민비서**를 통해서도 다양한 **돌봄정보를 제공**할 계획이다.

□ 다음으로, **「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계획」**에 대해 논의했다. 이번 계획은 **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**할 수 있도록 하여 **소비를 촉진**하고, **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활력**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정부는 우선 **누적 잔액 2.1조 원**에 달하는 **카드포인트**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. **내년 5월 서비스가 개통**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**'어카운트인포'**(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) 또는 **'지역화폐 앱'**을 통해 **카드포인트를 조회한 뒤 지역화폐로 전환을** 신청할 수 있으며, 전환된 포인트는 신청 **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**할 수 있다.

○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KTX 마일리지, 탄소중립포인트 등 **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전환**할 수 있도록 **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**할 예정이다. 아울러, 유통·항공 등 **민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**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또한, **「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」**도 발표하였다.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**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**하고 개선하기 위해 **국민 제안**(7.10~8.14)을 접수했다. 이후 **관계부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**, **온라인 투표**(10.19~30)를 거쳐 11건의 **우수 제안***을 **선정·발표**했다.

* "긴급 재난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·후신고 허용(대상)", "CCTV 자료 열람 및 보존 요구권 신설(최우수상)", "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(최우수상)" 등

○ 특히, 올해는 **적극적인 홍보**를 통해 **총 1,541건*의 제안이 접수**되는 등 **규제 합리화**에 대해 **국민의 관심**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 앞으로도

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**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**하고, **국민의 입장**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적극 노력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제안 접수 건수 : 전년 대비 45.2%↑/ ('25년) 1,061건 → ('26년) 1,541건

□ 마지막으로, **「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」**을 논의했다. 정부는 오는 12월 본격적인 **국제 항공안전평가***를 앞두고, 지난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**범정부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**했다.

*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,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), 금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법령, 조직, 종사자 자격, 항공운항, 항공기감항, 사고조사, 항행지원, 공항,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해 평가 예정

○ 정부는 그간 **국토부를 중심**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, 국방부, 기상청, 소방청, 해양경찰청, 공항, 항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**범정부 합동대응반**을 가동해 **평가 준비상황**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다.

○ 평가를 앞두고 11월부터는 합동대응반을 **수검대책반으로 전환**해 **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**하고, 남은 기간에는 잔여과제 및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**필요사항**을 **집중적으로 보완**할 계획이다.

□ 한 총리는 "각 부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, **필요한 개선**을 적극 추진해줄 것"을 당부하며, "**국민의 입장**에서 문제를 찾고, **국민이 체감하는 변화**로 답하겠다"고 다짐했다.

※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김지현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 박주언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초등돌봄>	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효신 (044-203-6603)
		담당자	사무관 박민지 (044-203-6604)
	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현관 (044-205-6450)
		담당자	사무관 정순희 (044-205-6447)
담당 부서 <미사용 포인트>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이아연 (044-200-2178)
		담당자	서기관 박재홍 (044-200-2182)
			사무관 장석권 (044-200-2184)
담당 부서 <규제합리화 공모전>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방준희 (044-200-2432)
		담당자	사무관 정진윤 (044-200-2636)
			사무관 이지은 (044-200-2639)
담당 부서 <국제평가>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곽영필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 권혁진 (044-201-4681)
			사무관 손경화 (044-201-425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